

《老乞大》 諺解類 諸板本 중 '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이종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leezq@hanmail.net¹⁾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往'의 역사적 변화
3. 《老乞大》 언해류에 출현한 '往'의 종류
4. 언해류중 '往'의 번역에 관한 분석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老乞大》 언해류의 제판본의 번역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중국어 교육과 중한번역의 관점에서 '往'의 언어학적 분석의 시도이다. 노걸대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중국어교재로써 중국 원말명초의 중국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시기의 언어는 근대중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시기의 것과 새로운 것이 교체되는 新舊교체기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어법특징을 보이고 있다.

《老乞大》는 11종 판본 중 5개 판본의 언해본이 있는데 언해본이라 함은 중국어 학습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당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언해류 자료에 대해 김완진(1975), 여찬영(1987,1988), 성광수(1990)등은 맹목적으로

1) "저자는 제2단계 BK21 사업(2007학년도) 新 한중문화전력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임."

신뢰해서는 안 되며 좀 더 충분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근대 중국어연구에 있어서 이 언해본에 쓰인 언해문은 의미, 통사적 해석의 판단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언해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판단 자체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므로 언해본의 번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해본도 판본에 따라 서로 다른 번역이 등장하므로 중국어 연구의 참고자료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는 '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往'은 고대 중국어에서는 주로 동사로 쓰였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허사의 기능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이는 번역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翻譯老乞大』(大約1510年), 『老乞大諺解』(1670年), 『舊刊老乞大諺解』(1745年), 『老乞大新釋諺解』(1763年), 『重刊老乞大諺解』(1795年) 5 개 판본²⁾에 나타난 '往'의 번역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2. '往'의 역사적 변화

'往'은 wǎng으로 읽히고 동사로 사용되던 단어로 근대이후 대부분 허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우선 고대와 근현대시기의 '往'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1 고대시기 '往'의 의미와 용법

남북조 이전의 고대 중국어에서 '往'은 타동사로 목적어를 대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즉 《書·洛誥》: "往新邑。"이다. 남북조 이후 자동사로도 쓰인다.

(1) 타동사 '가다'

2) 이하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는 각각 5 개 『翻譯老』, 『老解』, 『舊解』, 『新解』, 『重解』로 약칭한다.

《書·湯書》：“今朕必往。”

《墨子·兼愛下》：“被甲嬰冑將往戰。”

《莊子·大宗師》：“儻然而往，儻然而來而已矣。”

(2) 자동사 ‘~로 가다’(남북조이후에 등장)

《世說新語·任誕篇》：“謝鎮西往尚書墓還。”

《杜甫哀江頭詩》：“欲往城南忘城北。”

《杜甫新婚別》：“君今往死地，沈痛迫中腸。”

2.2. 근대시기 ‘往’의 의미와 용법

근대시기 ‘往’의 의미와 용법은 동사와 전치사로 쓰였다.

(1) 동사 ‘~로 가다’

《寶娥冤》：“我和媳婦兒說知，我往城外賽盧醫家所錢去也”。

《寶娥冤》：“……，老夫自得官之后，使人往楚州問蔡婆婆家，……。”

(2) 전치사 ‘~로 향하여’

《紅樓夢》：“文管等下來，往藕想榭去。”

《儒林外史》：“洗起手來，自己把兩個袖子只管往上勒。”

2.3. 현대시기 ‘往’의 의미와 용법

[실사]

(1) 동사 ‘가다’로 쓰이나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人來人往

一个往東，一个往西

(2) 형용사 ‘과거의, 이전의, 옛날의’

往日，往事

(3) 명사 ‘과거, 예전’

繼往開來

[허사]

(1) 전치사 ‘~를 향해, ~쪽으로’

①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며 처소사와 전치사구조를 구성하여 단음절 동사 뒤에 쓰인다.

火車開往北京

公司遷往中國

②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며 방위사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전치사 구조를 구성하여 동사를 수식한다.

往上拉

往前走

③ 회화체로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며 ‘高里’, ‘死里’등과 전치사구조를 이룬다.

사전적 의미항목을 근거로 하자면 고대 중국어에서의 동사 ‘往’은 근대에 들어 허사의 기능이 매우 높아졌고 현대에서는 용법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3. 《老乞大》 언해류에 출현한 '往'의 종류

《老乞大》 언해류 5종 판본 중 ‘往’의 출현 횟수는 78회로 『繡老』 13회, 『老解』 12회, 『舊解』 12회, 『新解』 16회 출현하였으나 『重解』는 25회로 다소 높게 출현하였다.³⁾ 품사별로 살펴본다면 전치사의 출현 횟수는 52회이고 동사의 출현 횟수는 26회이다. 이것들을 앞의 의미항목들에 비추어 그 용법을 나누어 본다면 동사, 전치사로 나눌 수 있는데 각 판본의 원문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3) 이 통계에서 ‘往’이 형태로 쓰인 경우 즉, ‘往年’ ‘往常’같은 것들은 배제하였다. ‘往年’의 경우 『繡老』에서는 ‘작년’으로 오역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0109a05 『繡老』 布價如往年的價錢一般 빛 갑슨 니건힐 갑과 험가지라 험더라

1) 전치사

전치사로 쓰인 '往'은 5종 판본 중에서 『翻老』 『新解』는 각각 10회, 『老解』 『舊解』는 각각 9회씩 출현하였고 『重解』에서만 14회 출현하였다. '往'이 전치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대 들어 '往'은 전치사의 기능이 매우 높아져 5종 판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어 ' ~로 (향하여)'의 뜻을 지닌다.

我往北京去	0101a05 ⁴⁾ 『翻老』
我往北京去	0101a05 『老解』
我往北京去	0101a05 『舊解』
我往北京去	01a04 『新解』
我往北京去	0101a04 『重解』

(2)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어 ' ~쪽으로, ~한 방향으로'의 뜻을 지닌다. 이런 의미의 '往'은 『新解』에서만 한차례 출현하였다.

慢慢的往飽裏吃罷 날호여 부르도록 먹으미 무던 하다 54a01 『新解』

2) 동사

'往'은 동사용법으로도 비교적 많이 쓰였는데 다섯 판본 모두 합하면 총 26회 출현

4) 원문의 출처는 여섯 개의 숫자와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맨 앞의 두 개의 숫자는 권수를 표시하는데 '01'은 上卷을 표시하고 '02'는 下卷을 표시한다. 다음 두 자리인 '04'는 '원문의 쪽수'를 표시하며, 원문은 두 면이 한쪽으로 되어 있으므로 'a'는 첫 면을 나타내고, 'b'는 두 번째 면을 나타낸다. 마지막 두 자리인 '06'은 해당 문장의 시작되는 행수를 의미한다.

하였다. 각 판본별 출현 횟수를 살펴보면 『翻老』 『老解』 『舊解』는 각각 3회씩 출현하였고 『新解』는 6회, 『重解』는 11회 출현하였다. 『新解』의 경우에는 판본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횟수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후대의 판본으로 갈수록 동사로서의 쓰임이 많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보자.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0112b07 『翻老』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0111b04 『老解』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0111b04 『舊解』
我要往山東濟寧府東昌縣高唐縣	15b04 『新解』
我要往山東濟寧府東昌縣高唐縣	0111b03 『重解』

위의 예문에서는 '往'이 타동사로 '~로 가다'로 사용되고 있다.

4. 언해류중 '往'의 번역에 관한 분석

위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往'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번역은 중국어 원문을 토대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분절문을 한 단위로 하여 분석을 한다.

1) 전치사의 번역

전치사로서의 '往'은 『翻老』 『老解』 『舊解』 『新解』 『重解』에서 각각 10회, 9회, 9회, 10회, 14회 출현하였다. 번역의 양상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하여'로 번역한 경우 『翻老』 4회, 『老解』와 『舊解』 각각 2회, 『新解』 『重解』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我也往北京去	나도 北京 향햏야 가노라	0107b04 『翻老』
--------	---------------	--------------

我也往北京去 나도 北京 향햏야 가노라 0107a01 『老解』
 我也往北京去 나도 北京 향햏여 가노라 0107a01 『舊解』

위의 예문에서의 '往'은 모두 '~으로'로의 번역이 이루어 졌어야 하나 『新解』 『重解』를 제외한 기타 판본에서는 기계적인 번역의 양상을 보였다.

'~로/으로'로 번역한 경우에는 『翻老』 3회, 『老解』 『舊解』 『新解』 각각 1회, 『重解』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便赶着那驢/往前行 곧 그 나귀를 모라/얹포로 가니 0129b01 『翻老』
 便赶着那驢/往前行 곳 그 나귀를 모라/얹프로 가더니 0126b03 『老解』
 便赶着那驢/往前行 곳 그 나귀를 모라/얹호로 가더니 0126b03 『舊解』
 就赶著客人的驢子/往前行走 즉시 客人의 나귀를 모라/얹호로 가더니 36b07
 『新解』

위의 번역은 전치사의 번역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으로'로 번역이 잘 이루어졌다.

'~을/를 향햏여'로 번역한 경우 『老解』 『舊解』 각각 2회, 『新解』 6회, 『重解』는 9회이지만 『翻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你既往北京去時 네 이따 北京을 향햏야 갈 작시면 0107a02 『老解』
 你既往北京去時 네 이따 北京을 향햏야 갈작시면 0107a02 『舊解』
 你既往北京去 네 이따 北京을 향햏여 갈 짝시면 09b03 『新解』
 你既往北京去 네 이따 北京을 향햏여 갈 양이면 0107a06 『重解』

위의 예문의 번역은 현대국어의 '~으로'로 번역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翻老』를 제외한 기타 4종 판본에서는 모두 기계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다.

'~로/으로 향햏여'로 번역한 경우 『老解』 『舊解』는 각각 3회, 『重解』는 2회, 『新

解』1회이고 『翻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我往北京去	내 北京으로 향햏야 가노라	0101a05 『老解』
我往北京去	내 北京으로 향햏여 가노라	0101a05 『舊解』
我往北京去	내 北京으로 향햏여 가노라	01a04 『新解』
我往北京去	내 北京으로 향햏야 가노라	0101a04 『重解』

위의 번역은 잘 이루어진 번역이라 할 수가 있다.

‘~에’로 번역을 한 경우는 단지 『重解』에서만 한차례 나타났는데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也不必你往市上去	또 구뜰여 네 市上에 가지 말고	0163b03 『重解』
----------	-------------------	--------------

5종 언해본에서 ‘往’이 번역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也不須你將往市上去	또 모로미 네 가져 저제 가디 말고	0169b02 『翻老』
也不須你將往市上去	또 굿 네 가져 저제 가디 말오	0162b06 『老解』
做火伴一同往北京去的	벗 지어 햏가지로 北京 가는 이라	21b10 『新解』
也不須你將往市上去	또 모롬이 네 가져 저제 가디 말고	0162b07 『舊解』
往涿州去賣了就廻來	涿州 가 풀고 곳 도라오리라	22a05 『重解』

전치사의 번역에 있어서 동사로 오역한 경우가 있다. 『翻老』 『老解』 『舊解』는 각각 1회씩 오역하였고 『新解』 『重解』에서는 오역이 없었다.

往前赶到約二十里地	나사가 거의 시십 리만 짜해 다드라	0129b08 『翻老』
往前赶到約二十里地	나아가 빠라 계요 十里 짜히 다드라	0126b10 『老解』

往前赶到約二十里地 나아가 쁘라 게요 二十裏 싸히 다드라 0126b10 『舊解』

‘往’은 후대의 두 판본에서 ‘~을/를 향하여’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는 전대에 비해 기계적인 번역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동사의 번역

동사로서의 ‘往’은 『翻老』 『老解』 『舊解』는 각 3회씩 출현하였고 『新解』 『重解』에서는 각각 6회, 11회씩 출현하였다.

‘~의 가다’로 번역을 한 경우는 『老解』 『舊解』에서만 각각 1회씩 등장한다. 이는 번역에 있어서 아주 기계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내 山東 濟寧府엿 東昌高唐의 가 0111b04 『老解』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 내 山東 濟寧府엿 東昌 高唐의 가 0111b04 『舊解』

‘에 가다’로의 번역은 『翻老』 2회, 『新解』 『重解』 각각 4회이고 『老解』 『舊解』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아주 잘된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咱們往順城門官店裏下去來 우리 順城門잇 덤에 가 브리엿저 0111a03 『翻老』

咱們往順城門官店裏住下 우리 順城門 官店에 가서 머므자 13b02 『新解』

咱們往順城門官店裏住下 우리 順城門 官店에 가서 머므자 0110a04 『重解』

동사로서의 ‘往’은 5종 판본에서 모두 25회 출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사를 전치사로 간주한 번역상의 오류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翻老』 1회, 『老解』 『舊解』 『新解』 각각 2회, 『重解』 5회의 번역의 오류를 범했다.

往北京做買賣去 북경 서울로 홍정허라 가느니 0151b06 『翻老』

往北京做買賣去 북경을 향허야 홍정허라 가[느]니 0146b06 『老解』

往北京做買賣去 북경을 향허여 홍정허라 가느니 0146b06 『舊解』

往北京做買賣去 北京을 향하여 賣買하러 가니 0147b01 『重解』
 往前又沒有甚麼店 앞으로 또 아모란 店도 업스니 49a09 『新解』

『新解』 판본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대에 들어 동사용법인 ‘往’에 대한 이해가 전대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나오는 말

위의 분석을 통해서 전치사로서의 ‘往’의 출현빈도수가 52회로 가장 높고 기계적인 번역의 양상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오류도 발생하였는데 그 수치는 5.77%에 달한다. 동사 ‘往’의 출현횟수는 총 26회로 『翻老』 1회를 제외한 기타 3종 판본에서는 동사를 전치사로 오역한 횟수가 평균 2회이고 『重解』에는 5회에 달한다. 『新解』의 판본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대판본에서는 동사 ‘往’의 용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치사 ‘往’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번역의 수준과 언해자들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는 후대가 전대보다 더 높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한국어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나타냈는데 『翻老』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을/를’이 후대에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전대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에’가 후대에서는 많이 출현하였다.

참고문헌

- 『翻譯老乞大』,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舊刊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老乞大新釋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重刊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李朝語詞典』, 延世大學校出版社, 2002.
『古今漢語字典』 第5版, 商務印書館, 2004.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5.
『現代漢語詞典』 第5版, 商務印書館, 2005.
王力, 『漢語語法史』, 商務印書館, 2003.
김완진, 「번역 박통사와 박통사 언해의 비교연구」, 1975.
김완진,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연구원, 1976.
석주연,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여찬영, 「경서류 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3집, 1987.
유명우,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 번역」, 『번역학연구』 제5권2호, 2004.
이미형, 「언해문의 문체 특징 연구」, 『어문학연구』, 1997.
이상도, 「최세진의 한어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Abstract

The research of misunderstanding to '往(wang)' between all kinds of
《Nohgeoldae》 Korean annotation

Lee, Jong-keum

The Korean annotation to Nohgeoldae is a book for Chinese and Korean records, which gets precious value in historical linguistic study. All kinds of the Korean annotation to Nohgeoldae are

Chinese-teaching materials by the way of Korean translation printed side by side with the original Chinese text.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tinuous study for the annotation in the view of Chinese and Korean translation.

The paper analyzes and studies the annotation to '往(wang)' in five versions of the Korean annotation. There are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5 versions for '往(wang)', and in the past, the Korean translators' understanding to '往(wang)' are different due to its parts of speech.. It is not the problem to understand the proposition type, but it is not for the verb type. And the understanding to '往(wang)' for verb type is in associate with the background of time. Most of the mistakes are due to the negative transfer.

Key words : 往(Wang), Nohgeoldae, annotation, translation, mistranslation